

도시계획 유기적 소통...정부 개입 축소를

광주시 도시계획 미래·정체성이 없다

〈3〉 광주미래계획 통합 관리·자치분권 반영해야

장기 계획 자제·단기계획 정기 점검·시민 참여 높이고
지자체 특성 살린 계획, 정부 수용 시스템으로 혁신 필요

광주시가 수립하고 있는 모든 미래계획에 대한 통합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간 수립업원의 용역을 발주하면서도 미래계획의 수립 주체가 다르고, 광주리도 도시공간이 아닌 개발법과 상위계획을 중시하면서 실효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모두 미흡하기 때문이다.

회과 일자리, 경제, 산업, 문화, 복지 등의 시행 전반기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조직 정비, 제도 개편 등의 시의 조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시공간과 관련된 도시재생국, 환경생태국, 교통건설국 등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복지건강국이 관련 계획을, 문화관광체육국이 관련 계획을, 민선 7기 조직개편으로 격상된 일자리경제실 역시 지자체의 계획을 중앙정부가 수용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장기계획은 되도록 자제하고,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면 미래 방향성만을 언급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단기계획은 그 이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실현 가능성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광주미래계획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경관계획, 도시공원녹지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등 도시 관련 계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계획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선 6기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참여단, 계획지원단 등을 구성하고 시민 대표들을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계획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설정하고 내용에 반영시켰으나, 그뿐이었다. 전문성, 기술 등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시민 참여가 불가능하고, 시민 의견에 대한 피드백(답변)이 제 때 전달되지 못하면서 시민 참여의욕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또 계획 수립 이후 그 이행 과정은 공유되지 못했다. 과거 형식적인 주민 참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따라서 시민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람, 공청 등의 현 제도를 혁신해 SNS, 우편, 언론 등을 통한 수의 의견 개진 및 답변, 이행 과정 평가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공람 등 형식적인 시민 참여-SNS 등으로 접근성 높여야=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미래 계획을 수립하면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람, 공청회 등에 대한 제도

·사업, 시민의 일상, 역사, 미래 방향 등과 관련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계획 수립 시스템은 철저히 개발법과 중앙정부의 계획을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획고권(計劃高權)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획일적인 법·제도를 적용하고, 여기서 어긋난 경우 행정·재정적인 불이익을 받게 하면서 각 지자체 고유 특색, 개성, 매력 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구조다.

따라서 지방분권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부처-광역지자체 관련 실무-기초지자체 관련 실무로 이어지는 하향식 행정을 상향식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 스스로 행정적, 재정적 한계를 감안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뒤 평가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성기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일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자치와 분권은 지자체의 역량과 그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d@

전남 바다 4일째 '고수온 경보'

어류 41만마리 폐사

양식장 먹이중단 등 당부

완도·진도 바깥해역을 제외한 전남연안 전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 4일째 지속되고 있다.

12일 전남도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계속되는 폭염으로 연안 해역 수온이 28도 이상 지속되고 있다. 28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고, 28도 이상이 3일 이상 또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고수온 경보가 발령된다.

전남연안에는 득량만과 서해남부내만(영광군 안마도 북쪽 횡단-해남 갈도 남방 횡단)에 지난 6일 고수온 경보발령이 내려진 데 이어, 지난 9일 경북 영덕 군계 북쪽-고흥 거금도 서쪽 종단과 충남 보령 원산도 남쪽-영광 안마도 북쪽 해역이 주의보에서 경보로 대체됐다.

완도 청산-노화-보길도, 신안 흑산도, 진도 조도 등 바깥해역을 제외한 전남연안 전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고, 4일째 수온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

12일 오후 3시 기준 수온은 강진 28.4도, 여수 신월 28.5-28.9도, 고흥 녹동 27.9도, 완도 가교 28.3도, 신안 압해 28.5도, 영광 낙월 28.8도 등이었다. 평년 수온이 25.7-26.9도인 점과 비교하면

1.7-2.1도 높은 상태다.

다만, 11-13일 대조기에 접어들어 진도쪽 냉수대가 전남 동부해역으로 강하게 흐르면 수온은 소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태풍이 중국 방항으로 비켜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바다 수온은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수온에 따른 어류 피해는 함평·장흥·고흥·여수 등 6여기에서 41만1000마리가 폐사했다. 피해액은 8억9000만원에 달한다. 어종별로는 돌돔 19만마리, 납치·강다라 23만6000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전남도는 어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에서는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액화산소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육상 양식장의 경우 가능한 취수구의 수심을 최대한 낮춰 수온이 낮은 해수를 끌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23일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투입해 차광막 설치, 액화산소 공급을 지원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예방 특별교부세 2억5000만 원을 받아 긴급히 시군에 지원했다.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에 14억 원을 고수온-적조 방제비로 신청하고, 해양수산과학원과 시군에 현장대응반을 활용해 양식장별 책임담당제를 운용토록 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3차 남북정상회담 8월말 평양 유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오늘 고위급회담서 합의 기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8월 말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내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평양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지난번 '평양이 기본이지만 평양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원론적인 말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언론이) 해석을 많이 해 부담스러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제3의 장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남북이 내일 논의하는 것이니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지금 시나 장소를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말한 대로 시·장소·방북단 규모에 대해 내일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선부르니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북에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남북 당국은 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도 회담 합의의 도출을 위해 실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남북 사이에 이미 여러 공식·비공식적 채널이 많이 있지 않느냐"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 내일 회담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과도 사전 협의를 했느냐"는 말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과 정보를 교환·협업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긍정적인가"라는 질문엔 "제가 미국 쪽 반응에 대해 들은 바 없으나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선순환을 하기 위한 회담으로, 남북회담이 북미회담을 촉진하고, 북미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을 앞당기는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북 통일축구 대표단 귀환 2박3일의 방남 일정을 마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북측대표단이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워커히호텔에서 서포터즈 등의 환송을 받으며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 국제농업박람회 4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

전남 농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농업의 미래비전 제시와 농업관련 전후방 산업의 상생을 추구하는 국제농업박람회가 4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다.

12일 재단법인 전남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에 따르면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최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국제행사로 승인됐다.

국제농업박람회는 2012년과 2015년, 2017년에 이어 4회 모두 국제행사 승인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제농업박람회는 국제적 박람회로서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물론 정부로부터 예산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내년 10월 17일부터 11일간 나주에서 열린다.

주최 측은 35개국, 490개 기관·단체·기업의 참여와 50만명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정했다.

특히 2019 국제농업박람회는 이전 박람회보다 국제행사의 성격을 강화해 ▲B2B 중심의 농업 활로 확보를 통한 비즈니스 박람회 기능 확대 ▲국내 최초 여성농업인을 본격 조명하며 사회적 농업 선도 모델 제시 ▲세계인이 찾는 박람회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농업 혁신기술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기존 행사와 차별화된 모습의 첨단 융복합 박람회로 준비된다. /최권원 기자 cki@

임야·삽니다

당일 매입가능, 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암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2018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 구분 | 광주여자대학교(27기) | 광주교육대학교(18기) |
|------------|---|---|
| 개강일시 | ·목요일 오전반 : 2018. 9. 6.(목) 09: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 2018. 9. 8.(토) 09:10 (특급반) | ·금요일 오전반 : 2018. 9. 7.(금) 09: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 2018. 9. 8.(토) 14:10 (중급반) |
| 모집기간 | 2018. 8. 1(수) ~ 9. 8.(토) | 2018. 8. 1(수) ~ 9. 8.(토) |
| 수업기간 | 2018. 9. 6.(목) ~ 2019.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 2018. 9. 7.(금) ~ 2019. 2. 8.(금) (6개월 24주 96시간) |
|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
| 수강료 |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
| 수료후특전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 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 |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선봉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선봉공):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

경주최씨 총렬공(광위)파 족보편찬 공고

경주최씨 총렬공파보 편찬위원회에서는 파보를 발간한 지가 37년이 지남에 따라 늦은 감은 있으나 역사적이고 자랑스러운 파보 1981년(신유)보를 계승 중간하고, 발간시 누락된 종원과 그 후 출생한 후손(남,여)들을 추가 등재하여 우수하고 귀중한 족보가 가보로 보존 될 수 있도록 편찬코자 합니다.

종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누보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단 접수기간(2차) : 2018. 10. 31까지 (1차 2018. 7. 31)
2. 수단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장남은 제적등본도 같이 첨부)
3. 접수처
- (우61619)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49 (월봉빌딩 2층)
- ☎ 062)366-9427 팩스 062)366-9428
4. 연락처
- 회 장 011- 609- 7951
- 사무국장 010-8615- 5043
e-메일 lapa560@hanmail.net

경주최씨 총렬공(광위)파 족보편찬위원회
위원장 원호 최기용
위원장 청암 최준동